

지원단체 40곳... 불교계는 2곳 뿐

■ 외국인 노동자 실태

2003년 2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36만7천여 명. 이는 1987년 6천4백여 명에서 무려 57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미등록 불법체류자 수도 4천2백여 명(65.5%)에서 28만7천여 명(78.4%)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지난 88 서울 올림픽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 따라 대거 한국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종 차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급증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가 지난 2001년에 발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 내 폭행 △인신 구급 △여성 노동자 성폭행 △입국을 위한 거액의 수수료 요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종교계의 지원 활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곳은 다른 아님 종교계다. 종교 본래의 사회적 역할은 바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인권 상담,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종교(성교)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종교계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나서고 있는 한 이유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해당 종교를 알리는 선교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런 목적으로 천주교·개신교 등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를 꾸준히 개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뛰어든 종교는 천주교다. 지난 1986년부터 부산·인천 등에서 사목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천주교는 말씀의선교수도회, 착한목자수녀회, 예수성심선교수도회 등의 단체들이 인권 관련 상담, 진료활동, 귀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개신교도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비롯해 광주외국인근로자 선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남양주시 여성교회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서울 조선족복지선교센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지가 7월 현재 종교 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40곳 시설 중 개신교는 20곳(50%), 천주교 14곳(35%)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교계는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단 2곳(5%)에 불과했다.

천주교·개신교 등의 지원 시설이 85%에 달하다보니, 불교계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0% 내외에 달하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불교계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파타(필리핀 국화) 공동체 천주교서울대교구'가 지난 1995년 필리핀 이주 노동자를 위해 서울 해화동에 마련해준 신행공동체다. 천주교는 이곳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주 일요일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필리핀 사제가 올리는 미사에 참여토록 도와주고 있다. 개신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외국인 노동자지원기 현주소

등 전국에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다. 두 종교는 불교권 국가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의 폭을 넓히는 등 활발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교계가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불교계의 활동 현주소 등을 짚어본다.

고 있다. 또 선재마을의료회가 27일 부천 석왕사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 무료진료소를, 또 전남 광주 자비선행회가 25일 '한빛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서울 조계사가 외국인 안내소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노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개신교에 비교하면 충분치 못한 수준이다.

김포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구본희 간사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타종교 시설에 불교계 외국인노동자들이 몰리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받아 줄 불교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 불교의 접근 방향

불교의 사회활동 분야는 복지나 환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인권이나 여성·아동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차적 과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이런 인식전환 없이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사찰이나 신행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불교계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교가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이 사회 속에서 옹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출발선상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법을 면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천주교·개신교 등이 그간 수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불교문화권에 신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 현지의 중·하층 선교 실패에서 찾고 있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또 이들 종교단체가 해외 선교전략을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선교로 전환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는 우선 종단 차원의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불교 프로그램 메뉴얼 제작 △법률 및 의료 분야 신행단체간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교구본사별 외국인 노동자 쉼터 개설 △불교권 외국인 스님 조빙, 자국 노동자 포교 전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병행된다"며 "이는 기존 80%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3년간의 합법적 체류자로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불교계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손영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
선임연구원



사찰에 가는 또 하나의 이유

성보 도난 막기 위해 전국 사찰 방문 비지정 문화재 획기적 관리 대책 필요

유명한 대찰이나 한적한 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깊고 높은 산속의 아늑한 공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건립된 사찰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부처님과 불화, 그리고 부처님의 권속들이 하나의 불국토를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나는 이런 사찰을 몇 해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주 다니고 있다. 전국에서 나만큼 사찰을 많이 다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거나, 개인과 가족의 복을 빌거나 특이한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내가 사찰을 다니는 이유는 그 속에 길게는 천년, 짧게는 몇 십년 된 소중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그런 문화재를 조사하러 사찰에 다닌다.

아마 웬만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스님들께서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일년 내내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 외에도 사찰에는 문화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 사진작가들, 일반 관광객들, 성지순례자들 등의 사람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 중에서도 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단을 오르내리고, 부처님을 비롯한 각종 성보(聖寶)에 줄자를 대어 크기를 재고, 만져보고 하는 나 같은 범부가 가장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물론 스님과 부처님께서는 나의 이 경망스러운 행동이 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 귀찮음도 흔쾌히 용납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주지스님의 허락 아래 진행되는 일이지만 가끔은 호법신중보다 더 근엄한 법당 보살님께 혼쭐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분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서

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찰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도난당했다. 두꺼운 책 한권을 채울 만큼 많이 도난당하였다. 아무리 최첨단 도난방지 시스템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거나 하듯 신출귀몰한 도난범들은 비가오고 눈이 오고 사람들의 미증없는 날만 골라 부처님의 복장을 훼손하고, 불화를 면도날로 그어 용케도 훔쳐간다.

내가 이런 조사에 던져진 것도 바로 문화재의 도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내는지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현재 사찰을 다니는 이유는 그 속에 길게는 천년, 짧게는 몇 십년 된 소중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그런 문화재를 조사하러 사찰에 다닌다.

아마 웬만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훨씬 더 많고 그 중에서는 국보·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상당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 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비지정문화재는 철저한 검증과 고증을 거쳐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준하는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스님의 말씀대로 "문화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두 다리 쪽 뺄 수 있었는 데, 알려지고 난 뒤로 짐을 잘 수 없다." 라는 말을 새삼 되내이지 않더라도 조사 끝난 후 그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의 사찰 탐방이 짐작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마도 스님께서도 두 다리 쪽 뺄 수 있는 수준의 짐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 나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닌 순수한 불자의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월말 총 36만 7천... 불법체류자 28만 7천명
임금체불·인종차별 등 각종 피해 무방비 노출

○천주교가 운영하는 갈릴레아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3백여명이 안산 원곡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보고 있다.

불교국가 노동자 타종교로 개종 사례 늘어 법률·의료·쉼터 등 지원 네트워크 시급

또 무종교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 선택도 천주교·개신교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불교권 국가로 알려진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무종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주교를 포함한 타종교 선택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한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문을 연 경북련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가 이 지역 검단 양곡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체불임금 의료상담활동을 하

수신토종오가피는



국회대외경제협력위원장 성광수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내유일의 정부출연 바이오전통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2201-3333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 병의된 중생에게 영기가 왜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재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 것이 영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기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 가위눌림이나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 천도시 영기가 세우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 노갯돈을 챙기는 모습
- ◆ 저속의 문이 열리고 영기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 분 특별 상담

-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림과 악몽에 시달리는 분
-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죽지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쫄대 바위, 남근 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민형 합장